

금요 양성 2024년 12월 27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

2025— 우리의 사랑과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성찰해 볼때

- 회개: 자아 (ego)를 놔 버리는 것
- “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짓 자아, 즉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려는 거짓 자아에 죽는 것이다.
- 이것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로 ”돌아서는 것”이다

-- 프란시스와 예수 by Murray Bodo, OFM

+ 형제회와 형제회 생활에 대한 나의 태도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
1- 형제회의 평의회를 선출하고 후원하는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.

- 매일 평의회원들을 위해 기도한다.
-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모든 행사를 협조하고 도운다.

+ 평의회를 후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
+ 평의회에서 봉사할 수있도록 불림을 받은 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는가?

2- 나의 형제회를 사랑한다.

- 형제회 월례회에 참석한다.
- 형제, 자매들의 말에 경청한다.
- 도움을 제공한다.
-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게 (전화, 이메일, 카드등으로) 연락한다.
- 고인이 된 형제를 위하여 또 형제회 기도 목록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.
- 프란치스코에게는, 형제회는 생활 양식 (해야 될 일들중의 하나가 아니라) 이라는 것에 유념한다.

+형제회에 제공할수 있는 어떤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가?

+형제회 활동에 자의적으로 참석하는가?

3- 회칙을 사랑한다.

- 서약시에 약속한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.
- 회칙에 대해 읽고, 기도하고, 묵상한다 - 매일 한, 두 조항 정도로
- 회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지 생각해 본다.

+ 마지막으로 회칙을 읽은 때가 언제인가?

+ 매일의 생활에 회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가?

4- 성서를 사랑한다.

- 성 프란시스의 말과 글 그 모든 것이 성서에 기초를 두었음을 안다.
-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겠다고 결심한다.
- 성무 일도를 바친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회안에서 (전 교회와) 기도하도록 도우며 성경 말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.

+ 매일이나 아니면 거의 매일 성서 봉독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?

+ “복음에서 삶으로, 삶에서 복음으로” 라는 말을 새로운 사람이나 재속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? (이것을 실행하는방법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가?)

5- 매일의 회개를 위해 노력한다.

- 매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안으로 초대한다.
- 화해성사를 이용한다.
- 우리는 “회개하는 형제 자매들”임을 기억한다.

+ 매일 나의 행동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가가?

+ 처음 프란치스칸이 된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? 지난 주이래로 어떻게 달라졌는가?

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가장 좋은 것

6- 성체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다.

- 주일과 축일미사에 참여하며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도 참석한다.
- 성체 조배의 기회—성시간이나 감실 방문하기—를 선용한다.

+ 성체안의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?

+성체 조배의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가?

2025년을 맞이 하면서, 여러분이 하는 모든일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해 보시오.

위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저널에 쓴 후에 형제회에서 토론해 보시오.